



통권 145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3. 11. 19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Hey, Rumsfeld! Go home!”



18일 낮 1시 10분경 승탄에 위치한 '오산' 미군기지 정문 앞 신장소필물 입구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 팽성, 서탄면 대책위원회, 평통사, 자통협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이라크 파병 강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향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 민중의 소리>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 2 / 이 달의 시 이기형 • 4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김효선 유뉴스 기자 • 6 / 기획-테러방
자법 무엇이 문제인가 • 8 / 이란 회원 오영순 편집위원 • 12 / 감옥에서 온 편지 임상우 • 14 / 감옥으로 보내는 편지 고평희 • 15 / 특집 I 김주의
열사 • 16 / 기행기 바다 회원 • 21 / 특집 II-8 • 15(북한방문기) 권오현 회장 • 22 / 슬픈일이 있었어요 • 28 / 시사영상 김규종 통일뉴스 기자 • 31 /
이란 일이 있었어요 • 32 / 재정보고 • 39 / 화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승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o.or.kr 이-메일 yangsimso@naverl.com

민가협 : 전화 765-5282 전승 745-5604

송두율 교수를 조건없이 곧바로 석방하라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검찰은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교수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제3조), 특수잠입탈출(6조 2항) 및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통신(8조1항)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범죄소명이 충분하다’ 며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송두율교수의 구속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속이며,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며 37년 만에 고국을 찾은 그에게 기다린 것은 따뜻한 조국의 품안이 아니라 서릿발 같은 냉전 논리와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 차가운 철창이었다.

수번 65 송두율

푸른 죄수복에 65번 수번을 달고 있는 플라스틱창 너머의 ‘경계인’은 뜻밖에도 매우 침착한 모습이였다. 그것은 양심상 죄가 없기에 뚝뚝하게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당당한 자세이기도 했다. 송교수는 말한 바 있었다. ‘남북이 하나의 조국으로서 공공이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예술가는 예술인으로, 학자는 학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그는 그러한 소신에 따라 행동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뒷에 걸려 있었다. 국정원에서 검찰로 이어진 강압수사와 여론몰이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듯 싶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학자적 양심과 특히 민족적 양심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조국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외세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어느 쪽도 조국이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송두율교수는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경계인은 어느 쪽도 아니라는 설명도 되겠지만 양쪽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안는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군부독재 체제와 그 관성을 버리지 못했던 남쪽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북쪽은 그의 입국을 허용했었다. 이제 와서 그의 행동에 대한 허물을 묻는다는 것은 역사적 현실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오만과 독선이며 무엇보다 낡은 냉전잣대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부당성을 몇가지로 나누어 밝히려한다.

현실 반영 못하는 국가보안법

먼저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이다. 이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6.15남북공동선언시대 더 이상 그 존립 명분을 잃은 지 오래이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다. 서로가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다. 그 뿐만아니라 평화 애호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에 남과 북은 함께 가입해 있으며 무엇보다 남과 북의 최고정상의 역사적 상봉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했다.

때문에 송두율교수에 대한 체포 영장에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라고 제시한 검찰의 주장은 오직 냉전논리의 검찰주장일 뿐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잣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비현실성의 구체적 사례로, 남과 북은 민간부분의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장관급회담 경제협력 추진위등 당국자 사이에도 정기적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의를 하고 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을 비롯한 이북 모든 지역에 대한 일반

관광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는 천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육로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물론 북측에서도 8.15민족대축전,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제주 남북평화축전에 대규모 선수와 응원단이 왔었고,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빈번히 남쪽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억지 논리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같은 이유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주장도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혐의도 웃음거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

송교수 구속은 수사권 남용

다음으로 송두율교수에 대한 구속수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송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면서 귀국했으며 국정원과 검찰에 자진출두 적극적으로 조사에 따랐다. 새삼스럽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지 않은 주거지도 분명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어떠한 혐의가 있다 해도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켜야 하며, 검찰은 이제라도 송교수에 대한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조치해야한다.

또한 송두율교수의 구속은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검찰은 송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송교수의 이제까지 활동과 관련 가치관이나 사상체계 학문방향등에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송교수의 저작 활동등을 들어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사업의 일환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 전파를 위한 저술활동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송교수의 학문체계에 대한 명예

훼손일 뿐 아니라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인권침해 의구심 지울 수 없어

마지막으로 검찰은 '송교수의 부당한 구속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강제 자백하게 하고 선거를 조건으로 하는 전향 따위를 강요하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했다.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고 있으며 특히 사상전향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어 폐기되었고 대안으로 내놓았던 준범서약제도까지 없앤 터에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송두율교수를 즉각 석방하라.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하고 송두율교수의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보장하라.

공안당국은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원칙을 지키라. ~~ㄱ~~

평양아 다시 만나자

-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다녀와서 -

이기형 시인

남북 분단 통한의 58년!
우리 남녘 1110명은 30여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원한의 38선을 넘어
하늘 땅 사이 그 이름 평양에 왔다.
평양아 네 얼굴 좀 보자꾸나
앞서 정주영 큰남은 소떼 천 한 마리를 몰고
철통 분단선을 뚫었고
이제 그 이름을 딴 체육관을 세웠다.
개관식은 남북의 통일식사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감격과 환호의 도가니였다.
평양은 천지개벽 변모했다.
세계 호전광들이 목조여 죽일려고 그렇게 광분했건만
너는 이렇게 건재하구나
건물마다 웅장 미려하고
전통과 현대와 자연이 잘 조화되었다.
대비(對比)건축이 돋보였다.
김일성광장 개선문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검정치마에 흰저고리 자주 고름이 날린다.
뽕오얀 연초록 저고리 옥색 치맛자락이 펄럭인다
웅대무비한 단군릉!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 은은했다.
소년궁전에서는 가야금소리 노래소리
거리에서 광장에서 음악이 흐르면 흥겨운 원무(圓舞)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자주통일 메아리가 하늘 땅을 울린다
연애도 통일언덕에서 통일을 다짐하면서 내일을 약속한다
남쪽 언론은 당달봉사였구나
반공교육에 눈귀가 멀었다
용단폭격 초토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구어냈을까
반쪽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최강 대 미국과 맞서
일보도 물러서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평양은, 오늘
고난의 행군에서도
강성대국을 향해
새 역사가 멋지게 용틀임 한다
세계 시선의 초점으로 치솟았다
웅대한 주체사상탑은
대동강가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있다
탑침과 모란봉을 번갈아 쳐다보며,
대동강을 지긋이 굽어보며
만상(萬想)에 잠겼다
역사여! 말해봐라
그래도, 반쪽엔 민족혼이 꽃피었구나
한 핏줄이 갈라져 한 갑자 긴긴 세월
한숨은 만장봉 구름이 되었고
눈물은 한강수(漢江水) 강물이 되었거니
진달래도 해당화도 봄이면 다시 피어
고운 얼굴로 만나 주지 않더냐
제비도 춘삼월이면 옛집을 다시 찾아 좋아라
지배지배 노래하드라
동안은 노안이 되었고
흑발은 백발이 된 피세월
한 핏줄이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니
세월아 역사여 무심하구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되돌아오는 날 아침
남북 형제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평양아! 그날
꼭 다시 만나자

(2003. 10. 16 용인 진산마을에서)

▶시인이며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이신 이기형 선생님께서 평양을 다녀오신 후 이시를 보내주셨습니다.

22년 감옥생활, 이젠 돌아가고 싶어

김효선 유뉴스 광주전남 주재기자

22살에 잡혀들어가 22년을 옥중에서 보낸 분이 있다.

1988년에 가석방되어 지금은 미싱 노동자로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이광근 선생을 만나 보았다. 아직도 남쪽에 남아있는 장기수분들의 복송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분들의 삶의 흔적을 미약하나마 짧은 글로 남겨야겠다는 시작된 이 꼭지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살아오신 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45년생인데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자랐지. 평양통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당에서 불러 바로 통일사업을 하게 됐는데, 믿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맡겼던 통일사업을 하게 되어 자부심이 대단했어. 이북에서 대남 담당 일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인 만큼 최고의 인재들에게만 맡기거든. 그러다 당시 내가 어렸을 때니까 학생들과 관련한 임무를 받고 남에 와서 활동하다 동료가 하던 일에 사고가 생겨 같이 잡히게 됐어. 그때가 1967년인데, 내가 22살 때야. 그 후로 22년을 감옥생활을 했지. 무기로 있다가 88년도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꼭 망망대해에 떠있는 쪽배가 된 느낌이었지. 가족이 있나, 그렇다고 친구가 있나. 감옥에서 만난 한 분과 연결되어, 지금까지 광주에서 미싱일 하면서 살고 있지.

참 어린 나이에 감옥생활을 시작하셨네요.

그랬지. 지금도 아마 장기수들 중에서 나만큼 나이 적은 사람은 없을 거야. 어린 나이에 들어갔는데 그때 교도소는 정말 사람살 곳이 못됐어. 지금이야 그래도 사회가 좀 나아져 교도소도 좀 나아졌지만, 그때는 사회도 먹고살기 힘들고 엉망인데 교도소가 얼마나 심했겠어. 말 그대로 밥에 섞여 나오는 콩 힘으로 살았지. 감옥생활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밤새도 다 못하

지. 특히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즈음해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인데 그때 전향공작은 말도 못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로 밝혀졌지만, 성명 발표됐던 그때는 땅값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통일이 되는 줄 사회가 들떠있었거든. 박정희가 교도소에 가득 차서 수용하기도 벅찼던 좌익수들을 가만둘 리 있어? 빨리 처리를 해야하고 말로는 안되니까 테러공작을 퍼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았어.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가서 폭력은 기본이고, 한겨울에 창문을 떼어가고 이불도 걷어 가질 않나, 밥도 물도 안주고, 깡패들 동원해 온갖 짓거리를 다했는데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버틴 사람도 많았지만, 정말 죽지 못해 전향한 사람들도 많았어.

출소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 오셨어요?

광주에서 출옥한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네. 당장 내가 이남에서 할 수 있는게 뭐 있어야지. 마흔이 한참 넘어 나왔는데, 가진 것이 있나, 찾아갈 사람이 있나, 도와줄 사람이 있나. 막막했지. 감옥에서 내보내기만 했지, 뭐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다행히 교도소에 있을 때 교화하면서 만났던 지금 사장과 연결이 되어 교도소에서 배운 미싱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광주 교도소에 73년 11월3일에 왔으니까, 올해로 광주에서 만 30년을 사는데 광주가 이제 제2고항이나 마찬가지지. 다른 곳에 갈 생각도 있었는데, 광주에 그래도 찾아볼 사람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는데, 미싱일은 이제 선수 다됐지.

이남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

복은 사회전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개인 플레이라는 게 없어. 무직자도 없고, 다 만족하진 않았지만 탈선하는 경우도 없었지. 그런데 자본주의인 남한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닌가. 신분이고, 사람됨이고

다 필요 없이 돈이면 잘나고 대접받는 세상 아닌가.

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빈털터리니까 사는게 불편하지. 나와서 선도 몇 번 봤는데, 잘 안돼서 아직 혼자 살고 있어. 남한 여자들이 소위 간첩경력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와서 고생하려고 하겠어?

또 보호관찰에 아직 묶여 있어도 행동반경이 제약돼 있어,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거든. 수감 안 채우고, 밧줄로 안 묶어놓은 것 뿐이지 항상 감시하는 거잖아 그게.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해. 그게 하루빨리 풀렸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이 범민 안 어기고 살면 자유롭게 자기 편한 대로 살기에는 괜찮은 곳이지만, 도통 대한민국사회하고 우리들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

북에 가족들 소식은 아시나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봐야지. 내가 남에 내려올 때 아버지가 이미 환갑이셨으니까. 살아계시리라 기대할 순 없지. 내가 5남매의 막내인데, 누님들도 나이가 많아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살아서 만나면 조카들이나 볼 수 있을까? 정치범에 묶여, 가족 소식도 알 수가 없으니, 도통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야.

북으로 송환에 대한 기대는 없으신가요?

몇 년 전에 비전향장기수들 북송되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더라구. 북에서는 ‘우리는 비전향, 전향 가려서 안본다’고 회담 때마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남에서는 여론도 있고 하니까 ‘국군포로’라 해서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구. 나는 경찰에서 몇 번 전화해서 물어 보길래 가고싶다고 그랬어.

사실 북에 가도 걱정은 걱정이지. 뭘 하며 살겠어. 부모가족들도 다 죽었을 테고. 예전 학교 동창생들이나 만날 수 있을까?그래도 가고 싶어.

“그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의 여운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가슴을 울린다. 부모도 안계시고, 친구들도 찾기 힘들지 모르는 고향에서 마지막 남은 여생 이나마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離散家族

이구영

離散家人再會天 經春經夏又經年
東西水解新方出 南北螞爭舊政懸
老去已嘗連理橘 生來何食合歡蓮
父兄髮白今安在 夜夜相思半醉眠

흩어진 가족은 만날 날 있다는데
봄 가고 여름 가고 무심한 해가 가네

동서는 화합하여 새 길이 열리는데
남북은 작은 일로 여전히 다투는구나

지난 날 살갑던 정 돌아보면 그리운데
살아생전 그 언제나 좋은 날 다시 올까

부형은 어디에서 백발이 되었을까
밤마다 그리움에 꿈속을 헤메이네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

양심수 후원회

[편집자주]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 증 자료를 요약하여 실는다.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①2001년 11월 28일 정부원안이 제출된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했으므로 원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 상 특례조항을 삭제했다며 ②“북한, 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 테러에 방화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먼저 “테러”,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에게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군병력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 **본질적 문제점 : 대테러조직 -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

1. 법안은 효과적인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①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제3조) ②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③테러의 진압 등을 위해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는 대테러센터의 관할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합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합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 조정을 하는 것(제4조 1항 제3호)은 정보기관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3. 대테러센터가 기획, 조정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협약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 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

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 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법안 제2조 4항)으로서, 사실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대테러대책의 핵심이 되는 대테러센터가 그 자체로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들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4조3항)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5항) 이는 공개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5.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하지 않으면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 어렵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보안업무를 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원칙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합부



17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인사를 전하기 위해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한 공동행동 대표들이 열린 우리당을 찾았으나 전경에 가로막혔다. [사진/ 통일뉴스 김치관기자]

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밀정보 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 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국정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기관은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정보력에 기반해 권한 확장을 꾀하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의 권한의 확대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군 병력의 동원

7. 대테러센터의 장(국정원장)은 군의 특수부대를 요청(제11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국정원이 국가의 물리적 집행력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제12조) 이는 위 5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 또한 그 속에 품고 있다. 가령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나 무역센터, 야구장 등을 군 병력이 경비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

●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9.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안의 수정이유에서 ‘북한’을 국내의 테러위협으로 명기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테러의 위협요인으로 상정되면서, 이를 통해 대테러기구의 권한과 기능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별도의 테러징후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권한은 언제나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지목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

10. 국제적으로 아직 ‘테러’에 관한 개념이 합의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히 확대하게 된다.

11.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2항),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12.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1항, 2항) 현재도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사찰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수사권한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출입국 규제 조치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수정 이유에서 ‘이슬람’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명기하고 있어, 특정국 출신의 외국인을 범죄집단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을 양산할 소지도 높다.

●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강화

13. 테러방지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 2호(국가안보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정원의 감청권한도 확대된다.

●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1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굳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적 감시의 틀 밖에서 그 범위가 광범한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

정,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 결론

15. 테러방지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경계를 넘어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선 안 된다.

지금은 도리어 국정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이 직접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일반 행정기관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후에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보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信條, 정치적 행동, 국내정치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금지하며,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또한 보다 철저한 감독 하에(의회와 법원의 개입 등)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간 정보교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의로운 자의 보배로운 삶

오영순 편집위원

법 무법인 창조 대표변호사 이기욱 님 사무실 규모는 필자가 어렵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꽤 큰 규모였다. 행여 취재에 응하지 않을까 싶어, 데면데면 잡아버린 약속인지라 서둘러 나선 탓일까? 이른 시간에 도착한 필자는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이기욱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충남 서청군 장창읍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행상하시던 아버님의 생활고로 인해, 동두천으로 이사해 지금도 부모님이 그곳에서 생활하신다 하니, 이기욱님의 제2의 고향은 동두천인듯 싶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하는 바람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이기욱님은 1년을 쉬다 검정고시를 치루고 중학교를 갔으며,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 1년짜이나 재수한 사람이 그 당시 들어가기 힘들다던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걸 보니, 이기욱님의 비상함은 타고 나신 듯하다.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인 정의감과 약자에 대한 애사심이 자리했던 이기욱님은 80년경 변호사 길을 들어서며 군법무관 생활을 10년 6개월 하셨다 한다. 이를 군 검찰관이라고도 지칭했으나, 주로 하는 일은 미군과 협상도 하고, 주한미군에게 돈, 토지가 오가는 관계를 법률적으로 처리 하는 일이 주 업무였기에, 이시기 시간적 여유가 많아, 변호사로써 진정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사회과학 서적도 더 많이 접하셨다 한다.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민변 활동가로 소리 없이 작으나 결코 작지 않은 실천들을 옮겨내시고 있었던, 이기욱님은 늘 무엇이 옳고 그른가

를 판단하며, 멈춤 없이 움직이는 행동가였던 것 같다.

1993년 가을! 안기부 권한 축소 문제 자체가 큰 화두가 되던 시기,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 공작” 사건이 터졌을 때, 이기욱님이 이 사건을 맡았다 한다. 감히 나서기 두려운 사건을 당당히 맞서게 된 기백이라! 1년여 동안 진행되던 이 사건은, 결국 프락치였던 백홍용이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94년 가을에 판결이 났다 하니, 얼마나 통쾌하셨을까?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긴 인연

늘 정의감과 약자에 대한 애사심은 감옥 안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 존재를 이기욱님으로 하여금 그냥 관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중들이 “장기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시절! 이기욱님은 철장 안에 계신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 대전교도소로 면회를 가셨다 한다. 이 시기 이종환장기수 선생님을 처음 면회하였는데, 감옥 들어온 이래 외부인은 처음 만났다고 말씀하신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 이후로도 송환되실 때까지 끈끈히 이어졌고, 이기욱님이 8·15 통일축전 때, 북녘 땅을 밝게 하는데도 큰 작용을 한 듯 하다.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 만나서 어떻게 사시는지, 대화도 나누고 싶었고, 사는 집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남한사회 계셨을 때보다 더 젊어진 듯한 선생님들과의 짧은 만남은 아쉬움으로 자리하지만, 그때의 벽찬 감격은 잊을 수 없는 장입니다.”고 말씀하시는 이기욱님은 내년에 있을 제2차 장기수선생

님 송환 문제를 꼭 성사시킬 본연의 과제로 삼고 있는 듯 했다.

“느닷없이 당혹스런 질문을 던지셨다. 처음 같이 자리한 그 순간부터 묻는 질문이었다. ‘양심수 후원회 게시판에 양심수 숫자가 몇 명으로 기록되는지 압니까? 얼마전 40~50여명으로 기록 되던데 그건 잘못된 수치입니다. 어찌 양심수 숫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만해도, 일천 명이 감옥 안에 있고, 그밖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소신껏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용감히 소리 낸 이들이 몇 명인데, 그런데 양심수 숫자가 불과 40~50명이라니요?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지칭된 이들만 양심수입니까? 물론 그 많은 양심수를 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역량은 안된다는 것,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아는 문제지만, 재정적인 후원이 아직 못미칠지라도, 적어도 양심수 숫자에는 그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되묻는 이기욱님!

작은 소모임 활동과 작은 정성을 모아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일반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라 말씀 하시는 이기욱님에게서 후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을 엿볼 수 있었다.

약자에 대한 “작은소리”에 더 큰 의미를 부여

때로는 솔직함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에 잡음도 생긴다는 이기욱님!

허술한 사람이라 무작정 여행 하는 걸 좋아하고, 술이 안받는 체질이라 그 다음날 힘들어서 “다음엔 술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술자리가 생기면 무작정 기분 좋게 마신다는 이기욱님!

정의감과 약자에 대한 ‘작은 소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 사회에 큰 디딤돌 구실을 하시고도 남을 이기욱님과 인연을 오늘로 맺게 된 필자는 삶의 짐을 힘겹게 느끼고만 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으나, 뒤돌아서는 발걸음은 왠지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2003년 11월 4일 현재, 총 104명

아래 자료는 민가협이 2003년 11월 4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 및 노동조합, 언론, 법원, 교도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2003년 11월 4일 현재, 전국의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학생 19명, 노동자 59명, 재야 및 기타 23명, 군인 1명, 농민 2명이다.

11월 4일 현재 양심수 10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의 19.2%인 20명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710명이다.

신분별 분류					
총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인	농민
1047명	19명	59명	23명 (철거민 12 · 노점상 5)	1명	2명

적용법규별 분류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 (업방 등)	공무방해	폭력	화염병
20명 19.2%	32명 30.8%	43명 41.3%	36명 34.6%	30명 28.8%	1명 1%

기결 · 미결 분류					
구 분	학 생	노동자	재야 · 기타	군 인	농 민
기결 12명	2명	7명	1명	1명	1명
미결 92명	17명	52명	22명	-	1명

-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군인, 경찰 구속자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방: 공무집행방해
업방: 업무방해

“평생 운동의 길에서 후원회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임상우 한총련 구속자(연세대)

보내주신 돈과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연세대에서 수배해제모임 할 때도 누구보다 저희들의 수배문제에 애쓰시고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를 위해 수고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군요.

권오현 선생님과 회원분들께 편지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5년 만에 창살 없는 감옥을 나와 10월 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출두는 지난 7월 25일 발표된 대검찰청의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관용조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구속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과거 한총련 대의원 활동에 대한 탈퇴나 반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를 매우 분노케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구속문제를 넘어 정부나 공안기관이 여전히 한총련 문제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며 대검의 관용조치라는 것이 탈퇴나 반성을 전제로 하는 야만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대검의 조치로 한총련 수배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한총련 학생들이 수배의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경찰의 감시를 피해 차디찬 강의실이나 학생회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원회 분들처럼 이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총련의 합법화와 수배해제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곳에서의 저의 생활과 투쟁이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생 운동의 길에서 후원회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2003. 11. 14

임상우 올림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를”

고광희 양심수후원회 회원

안녕 상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오랜만에 cafe “보이지 않는 창살”에 들어갔다가 너의 소식을 알았어.

지난 7일에 있었던 심리재판에서의 헤프닝말야. 어떻게 변호사 아저씨는 재판이 있다는걸 잊을수가 있는 거래니? 그래서 재산형이 그렇게 열받아 했었구나. 어머님께서도 속 많이 상하셨겠다.

음... “보이지 않는 창살”에 올려진 사진을 통해 수배해제 모임의 지난 과정들을 다시 되돌아 보았어.

사진 속 사람들의 옷차림이 그 어떤 설명없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고생했는지 한눈에 말해주더라.

쏟아지는 세찬 빗줄기 속에서도 거리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자유를!” 외치시던 지난 7월의 가족 집단 상경 투쟁 때 부모님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란 생각에 잠시 목이 메었다.

오늘 퇴근후 신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게 되었어. 일을 마치고, 문득 어제 버스를 타고 연대앞을 지나다 보았던 연대 정문앞의 하얀 천막이 생각났어.

그래서 잠시 둘러보았단다.

이미 어두컴컴해진 겨울의 19시 40분이어서인지 오늘의 농성은 정리가 된 듯 불꺼진 천막과 모의감옥, 선전판과 바람에 펄럭이는 프랑만을 보았어.

가슴이 답답했지.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 무기한 농성 33일째”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

내가 하루하루 나의 일상에 치어 바쁘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 몇 달 동안에도 한총련의 견결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

나는 사실 올 초 연대에 수배해제 사무실이 개설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이제는 끝장내자!’라는 각오로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될거야..라는 희망을 가졌었어. 하지만, 지난 10월에만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잡혀갔는지...

‘언제까지 잡혀가야 합니까...언제까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도 없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쓰여있던 선전판의 글귀에 가슴이 아팠어.

지난번 재산형과 함께 너를 면회했던 날 재산형 조카 5살 현주가 왜 네가 거기에 있는지 묻는데..우린, ‘죄를 짓지 않아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었지.

참 말도 안되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다니 말야.

우리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당연한 말만을 해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도 은근한 촛불 한 자루의 밝음으로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앞으로도 변치않고 계속...

너두 곧 나와서 먼저 건강을 추스르고 너를 염려하고 함께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의 빛과 소금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래.

그럼 건강하고 밝은 웃음으로 얼굴 볼 수 있기를...
안녕!

2003. 11. 17

광희누나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민주노총

[편집자주] 이 글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세 분 열사의 상황을 모두 거론해야 하나 후원회 소식지의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우선 이번 호에서는 김주익 열사에 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뤄 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할 때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분신 사망했다. 그후 9개월만인 2003년 10월 17일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다. 세원테크에서는 8월 26일 이현중 동지가 죽고 10월 23일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하여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이 분신하여 생명이 위태롭다. 누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가는가?

1) 부패, 세습, 노동착취의 아성 한진재벌

문어발 확장

한진은 1950년대 미군부대 화물수송업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군수물자 운송을 발판으로 '재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동양화재(67년), 한국공항(68년), 한진건설(68년), 대한항공(68), 한진해운(77) 등을 설립(인수)하여 문어발 확장을 해 나갔다. 이어 80년대 말 법정관리중인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을 인수해 2003년 현재 21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한국 8위의 재벌이 되었다.

부정부패로 이룬 한진재벌 총수일가의 세습

김대중정권 초기인 지난 99년 6월 한진그룹의 1조 원 395억원 탈세가 적발되어 5,416억원을 추징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세 포탈을 주도한 것은 조중훈과 조양호 그리고 조수호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이

들이 빼돌린 금액은 드러난 것만도 각각 1,095억원, 1,685억원, 10억원 등이었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대부분 한진계열사의 주식인수자금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양호(장남)는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정석기업 등을 조남호(2남)는 한진중공업과 한일레저를, 조수호(3남)는 한진해운, 조정호(4남)는 동양화재해상보험 등을 나눠 갖는 식으로 재벌 2세에게 그룹 계열사 지분분할 방식의 세습이 진행되었다.

한진중공업은 99년 3월 코리아타코마 인수 합병, 99년 8월의 한진건설과 한진종합건설을 합병했다. 한진건설은 경영의 문외한인 조남호가 최대주주(177만 3225주, 10.46%)였으며, 합병 당시 한진건설은 부채비율이 3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로 인해 한진중공업은 약 1조원 정도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으며 이후 이 부담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1998년 말에 조남호의 한진중공업의 보유 주식은 겨우 7만 5000주(0.21%) 정도였으나 99년 190만 6255주, 2001년 11월 265만 8067주, 2003년 3월 550만주, 2003년 6월 858만 8817주(13.01%)로 확대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115배로 불린 셈이다.

조남호 일가의 주식배당 잔치로 탕진된 영업이익

조선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 5년 동안 한진중공업의 영업이익은 총액 면에서 볼 때 1999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을 보면 98년과 99년이 각각 15.4%와 14.6%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2000년부터는 7.4~7.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을 타사와 대비해 보면 삼성중공업은 5.1%(2002년), 6.4%(2001년), 8.8%(2000년) 현대미포조선은 -7.9%(2002년), -1.2%(2001년), 6.3%(2000년), 현대중

공업은 5.6%(2002년), 7.2%(2001년), 11.3%(2000년) 등이다. 이렇게 볼 때 한진중공업의 이익률 수치는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벌은 돈을 모두 어떻게 썼는가?

일부는 계열사 부실부채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다. 2000년 1616억 4100만원, 2001년 1298억 3800만원, 2002년 980억 1200만원 등 영업이익의 80% 이상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그나마 해마다 300억원 이상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익금의 일부는 기업합리화적 적립금이라든가 임의적 적립금 등의 이름으로 2000년에 31억원, 2001년 216억원, 2002년 203억원 등 지난 3년 동안 총 450억원이 사내에 축적되었다.

대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 가운데 사내유보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의 배당금 분배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즉 2000년 208.3%, 2001년 154.6%, 2002년 66.5% 등이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한테 배당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조남호 등 특정 주주(주로 조씨 일가)를 위해 적정 금액 이상의 과도한 배당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한진중공업에서 조남호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이 49%(2001, 2002, 2003년 기준)이므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남호 및 특수관계인이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총 248억원(=99억원+71억원+7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남호 등은 이 배당금으로 자신의 한진중공업 주식 매입 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노동착취 : 임금동결, 강제퇴직

2002년을 기준으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평균연령 44.5세, 평균근속 17.2년에 이를 정도로 오랜 노동에 시달려왔지만 기본급은 106만5940원, 통상급 120만 5886원 정도였다.

이는 조선 7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선업체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인 대동과 비교해 보아도 임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7사 임금 현황>

[2003년 3월말 기준, 단위: 원]

	기본급	통상임금	월할상여금	평균임금
한진중공업	1,065,940	1,205,886	810,027	2,031,676
삼 성	1,111,083	1,599,726	809,807	2,891,962
STX	1,162,989	1,301,713	834,333	3,010,421
현대미포	1,120,008	12,58,808	729,124	2,466,776
삼 호	1,165,027	1,362,903	832,726	2,594,747
현 중	1,337,330	1,514,501	928,086	2,442,138
대 우	1,364,273	1,527,640	862,131	3,010,261

기업경영이 정상적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무비는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2000 - 2002년간 조선 6사의 전년 대비 노무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진중공업(주)의 노무비만 감소하였다. 실제로 한진중공업의 노무비(=급여+퇴직급여+기타노무비)는 2000년 1672억 8600만원, 2001년 1671억 1400만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1397억 8200만원으로 1-2년 전에 비해 274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2002년 4-5월의 650여명에 달하는 생산직노동자의 강제 명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7사의 전년 대비 노무비 증가율>

[2000~2002년, 단위: %]

	한진중공업	삼성	대동	현대미포	삼호	현중	대우
전년대비 노무비 증가율	-8.3	8.8	30.1	16.2	25.8	12.6	223.8

<한진중공업의 최근 3년간 노무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00.12	2001.12	2002.12
노무비	167,286	167,114	139,782

2) 손배소송 · 가압류를 앞세운 한진중공업 노조탄압

91년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를 세우려던 박창수 위

원장이 감옥에서 안기부의 개입흔적을 곳곳에 남긴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박창수 열사의 의문사진상규명 투쟁에 대해 노조간부 12명을 상대로 7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94, 95, 98년과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번에 걸쳐 노조와 노조간부 113명에게 총 18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자행한 한진중공업은 결국 김주익 지회장마저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2002년 3월 강제사직, '인력체질개선'

2002년 3월부터 회사는 관리직 사원을 대상으로 들연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전체 관리직 1천명 중 110명이 강압을 이기지 못해 사표를 냈다. 이어 해고열풍이 생산직으로 넘어왔다. 노동자 1천6백명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회사는 3년 이내에 정년을 맞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공약에 들어갔다. 결국 약 650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사직 시켰다. 4월 길거리로 쫓겨난 한 조합원의 어머니와 장애인 여동생이 강제사직 뒤 탁 칠 생활고를 비관해 음독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끝까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직대상자'들은 해고보다 더한 수모를 당해야 했다. 회사는 고령노동자 138명을 대상으로 '인력체질개선'이란 것을 도입해 엑셀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독후감쓰기 등 과제물을 내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모두 용접사와 제관공 등으로 컴퓨터는 물론 독후감과는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3년 5월 희망퇴직 종료와 교육이수자 원직복직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교육을 마친 108명 가운데 복직자는 고작 20명. 나머지는 모두 기한조차 알 수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다.

2002년 5월, 손배가압류 7억원 20명 징계

노조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2002년 5월 30일부터 이틀동안 전면파업이 벌어졌다. 회사쪽은 지회 간부 20여명과 조합비에 대해 7억 4천 4백여만원 손배?가압류, 지회장 등 14명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2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명을 징계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임금동결과 배당금 잔치 속에서 해를 넘긴

2002년 입단협

2002년 3월에 시작된 입단협은 해를 넘겨 계절이 일곱 번 바뀔 때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2002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239억원에 달하고 2000~2003년 당기순이익 총액이 429억5,600만원이었지만 노조에겐 '임금동결'을 강요했다. 한진은 2003년 순이익 중 159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했고, 이 과정에서 조남호 회장과 관련된 회사는 총배당의 40.9%를 챙겼다. 조 회장 자신도 모두 7억7,200만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80억은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보관했다.

김주익 지회장 크레인 농성 돌입 그리고 합의파기

참다못한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 85호 크레인 위로 올라가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노동부 중재로 △임금 7만5천원 인상 △손배?가압류 등 현안문제 해결 △성과급 100% 지급 △타결급 50만원 지급 등에 힘겹게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자와의 합의파기를 손바닥 뒤집듯하는 노무현정권 따라배우기를 하듯 회사는 닷새만에 이를 뒤집으며 사태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마산과 울산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 협상에 응하겠다"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식의 조건만 늘려갔다.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하며 본격적으로 파업대오를 교란시켰다.

3)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정권과 한진재벌

노무현정권은 2003년 10월 1일에 김주익 한진중공업지회장, 변재규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정홍형 금소노조 부양지부 사무국장, 김양수 한진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인수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 차해도

한진특수선지회장 등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다.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흥흥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게다가, 10월 14일 새벽 2시부터 50여동의 농성천막 앞에 있는 선박을 침단장비를 동원해 빼앗아갔다.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노 분열공작에 더욱 열을 올리고, 10월 13일에는 사측이 한진중공업 마산특수선지회 180명 조합원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10월 1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총 150억원)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2003년 10월 17일, 85호기 크레인 앞에서 아침집회를 하던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아침 집회때 마다 인사하던 김주익 지회장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크레인 농성 129일째에 태풍 매미까지 이겨냈던 김주익 지회장은 두 장의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하~~

무엇이 소중한니까

조현옥 시인

바람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천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의 현실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태양 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달님 보다 더 소중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면
그러한 사회는 절망뿐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눈물뿐입니다

재벌 독점 자본가는 비호하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 나라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노태우 정권 때 보다 2 배 많은 노동자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손배가압류 해고통지서
경찰출석요구서, 해고와 구속 수배 신용불량자로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노조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보다 고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바람이 소리지르며 달려갑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피를 토하는 울음으로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와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나라에서

김주익 열사 유서

오랜만에 밝고 구름없는 밤이구나.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달은 벌써 만월이 다 되어가는데, 내가 85호기 크레인 위로 올라온 지 벌써 90여일 조합원 동지들의 전면과업이 50일이 되었건만 회사는 교섭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에 협조적인 조합원의 씨를 말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다.

노동자가 한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그런데도 자본가들과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1년 당기 순이익의 1.5배,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경영진들. 그토록 어렵다는 회사의 회장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거액의 연봉에다 50억원 정도의 배상금까지 챙겨가고 또 1년에 3천5백억원의 부채까지 갚는다고 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강요하는 임금동결을 어느 노동조합, 어느 조합원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만 21년,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 그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십몇만 원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할텐데 헛수가 더할수록 더욱더 쪼들리고 앞날이 막막한데 이놈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니 노동자는 다 굶어죽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어차피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한사람 죽어서 많은 동지들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경영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빼어든 칼에 문힐 피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 당신들이 나의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제물로 바치겠다.

하지만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잘못은 자신들이 저질러놓고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에 고소고발에 구속해 해고까지 노동조합을 식물노조로 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승리할 때까지 이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빨리 가는 것뿐. 결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무엇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무어라 할말이 없다. 아이들에게 힐리스인지 뭔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크레인에 올라온지 며칠 안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준엽아. 헤민아. 준하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적어보는 이름이구나. 부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 바란다. 그리고 여보. 결혼한지 십년이 넘어서야 불러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호칭이 되었네. 그동안 시킨 고생이 모자라서 더 큰 고생을 남기고 가게 되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한 데가 있는 사람이라서 잘 해주리라 믿어. 그래서 조금은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애.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먼저 가신 부모님과 막내 누나를 만날 수 있을꺼야. 그럼 모두 안녕.

2003년 9월 9일 김주익

김주익 열사 약력

- 1981년 2월
태백기계공고 졸업
- 1982년 2월
대한조선공사 직업훈련소 입소
- 1982년 8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입사
- 1990년 8월
제28대 대의원, 문체부장
- 1992년 8월
제30대 수석부위원장
- 1993년 8월
제30대 부위원장 역임
- 1994년
제31대 사무국장 역임
- 1994년 7월
LNG 선상 파업투쟁으로 구속, 강제휴직
- 1995년 8월
원직복직, 산업안전보건 위원
- 1996년 8월
제34대 대의원
- 1997년 8월
제35대 대의원
- 2000년 11월
한진중공업 통합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당선
- 2002년 11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재당선(임기중)

처음 참가한 역사기행

바다

역사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걸 체험한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가서 읽었던 책이 ‘역사란 무엇인가’ 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도 인간과 역사가 그리고 나와 역사가 하나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지내왔나봅니다. 지난 날의 많은 삶들이 마치 역사란 책속에 있고 나는 관찰자로서 이리 저리 훑어보듯이 살아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동행하신 여러 선생님들... 출신도 다양하셔서 남부군, 인민군, 국방군 혹은 간첩, 또는 자생간첩(?)- 이런 무례한 표현을 하다니 부디 용서를- 으로 내가 철들어 세상을 살아온 것보다 더 오래 감옥을 사셨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전적지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감동적인가는 가본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주장하고 연원하는 자주와 민주,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관념을 넘어 온 몸으로 체현하고 목숨과 바꾸어 싸우셨던 전장들을 다시 밟으며 그때의 동지들을 떠올리고 민중들의 연원을 떠올릴때마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현장감으로 내가 서있던 골짜기의 발 밑을 내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기행을 마치고 정리하는 자리에서 한결같은 말씀이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과 우리는 미국놈들과 맞서 싸운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토록 피어린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아팠습니다. 이런 자리를 더 많은 사람

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생님들의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기울이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회원아줌마들의 수다떠는 소리와 노랫소리, 선생님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동지선달 긴긴밤이 너무 추워서 사랑하는 **이의 손이 틀까봐 돌아오는 장날에는 몸을 팔아서 장갑하나 사주려는 **이 마음 애야디아 **이는 **이 좋아해 애야디아 **이는 **이 사랑해”

이 노래를 처음 들은 때가 한 이십년 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혈기방장했던 선배들, 동무들과 막걸리를 앞에 놓고 돌아가면서 불러주던 노래... 이 노래를 가만히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세월은 흘러 그 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쩐지 혜순아줌마의 노래소리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있는듯 느껴졌습니다.

처음 참가한 자리여서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었지만 여러모로 의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번 여행이 저에게는 매일 매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거름이 되

평양에서 울려 퍼진 ‘우리는 하나’

권오현 본회 회장

조국광복 58돌이 자, 민족대회가 열릴 8·15일이 밝아 왔다.

동녘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평양에서의 해돋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기욱부 회장 방을 두드렸다. 그런데 심재환 변호사 혼자만 있었다. 이기욱 변호사는 일찍 산책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새벽잠을 깨울까봐 6시가 되어서야 찾아 갔었는데 한방 얻어맞은 꼴이었다. 맑은 아침공기를 가르며 부지런한 사람들은 호텔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호텔 정원을 참 잘 꾸며놓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골프장이었다. 이기욱 부회장은 그곳에서 힘찬 티샷을 날리고 있었다. 대동강가로 내려갔다. 물이 맑다. 물풀들도 자라고 있었다. 한강에서 보았던 시멘트 블럭이 아닌 돌을 쌓아 강안공사를 했고 그 위에 산책길을 만들어 놓았다.



넘어로 모란봉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모란봉지대는 평양중심에 있는 수도의 정원이 되고 있었다. 표고가 제일 높은 최승대(95m) 평양8경의 하나인 울밀대와 부벽루, 평양성 북성의 북문이었던 현무문 남문이었던 전금문등

고구려시대의 유서 깊은 건축물이 고색창연한 고구려성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바로 울창한 숲과 깎아지른 절경 밑에 대동강의 푸른 샨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었다. 짙은 숲으로 둘러 쌓인 유원지의 너른 잔디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리게 되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취주악단

남측대표단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남측대표단’ 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6·15공동선언 고수 이행하자’ ‘8·15민족대회 재일조선인단 대표’ 들이 또한 뒤따라 들어온다. 남측대표단은 행사장 가운데에 자리가 배정되어있었다. 그리고 대표단과 좀 떨어진 앞에 주석단이 마련돼 있었고 남,북,해외 주석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기욱 부회장은 캠코더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 분주했다. 아!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던가 싶다. 2000년 ‘조선 로동당 창건 55돐’ 때 능라도에 왔었지만 곧바로 5.1경기장으로 갔었기에 유원지를 밟아 볼 수는 없었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그 모습

을 보여주며 남쪽 동포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여성취주악단이 그 화려한 차림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며 행사장에 들어 왔다. 많은 대표들이 그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 모습들도 또 담고 있었다.

단일기 입장과 함께 개막식 개최

10시 10분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개막식이 허혁필 북측민화협부회장과 김종수 남측 종단 사무총장 공동사회로 열렸다. 허혁필 사회자가 남과 북, 해외참가단체 이름을 다 부르며 200여 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을 공시했다. 당연히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이름도 불리고 있었다. 대표단 850명 말고도 북녘인민들 2000여명이 참관하고 있었고 남,북,해외 보도 일꾼들의 취재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애국의례, 개막선언에 이어 남북해외 대표가 함께 들고 오는 단일기 입장과 여성취주악단의 아리랑가락에 맞춰 제양되고 있었다.

먼저 순서로 대회명예손님으로 불린 홍성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생략)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통일 선언이다.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상, 이념을 넘어 민족공조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생략)우리는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역사도 하나이다. 해내외 통일운동 단체 모두 힘을 모아 반전 평화운동을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생략)”는 내용이었다.

이어 기본연설이 이어졌다. 먼저 남측의 한양원 종단 대표가, 이어 북측의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범민련북측의장)이, 다음으로 남측의 윤재철 민화협상임의장, 이어 북측 박순희 조선여성동맹 부위원장, 해외대표로 양은식 범민련 미주본부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순으로 이어졌다. 연설들은 남,북,해외 어느 쪽도 서로에게 부담스런 내용은 없었다. ‘6·15공동선언이행, 우리민족끼리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일부대표들의 연설 일부를 옮겨보기로 한다. “시대는 변하고 역사의 방향은 달라져 분열과 대결의 시대에서 단결과 화합의 시대로 꽃피게 되었다. 통일의 역사는 자연사적 역사가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자주와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외세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역사이다. 삼천리강산 조국반도에 핵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에도 앞서야 한다. 민족의 존엄과 생존위협에 민족공조기치아래 결연히 맞서야 한다.” (안경호)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새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애국 애족 정신 위에 6·15공동선언정신을 굳게 세워야 한다. 오늘의 구국광복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여 민족의 안녕을 지키는데 있다.” (윤재철)

“해외동포들에 있어 조국은 어머니 품이고 삶의 요람이다. 우리가 그리는 조국은 통일된 조국이지 분열과 비극이 지속되는 조국이 아니다. 우리 조국은 하나이고 더 이상 갈라져서는 안된다. 조국의 운명은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규정하게 된다. 민족공조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양은식)

“해외동포들에 있어 조국은 어머니 품이고 삶의 요람이다.”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민족대회 이름으로 공동호 소문을 채택했다.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황해남도위원회 강규장위원장과 남측 여성단체협의회 이김경숙공동의장, 그리고 해외대표로 재중조선인청년연합 윤쾌한 회장이 함께 읽은 것을 참가자 모두의 큰 박수로 채택하였다. 그 중요 항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7천만 겨레의 굳은 평화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둘째,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전쟁위협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여 이 땅 위에 영

원히 평화가 깃들게 할 것이다.

개막식을 마친 다음 점심식사를 하며 남과 북, 해외 대표의 부문상봉모임이 있었다. 미리 준비된 곶밥(도시락)과 음료수, 맥주 등이 있었다.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노동, 농민, 청년, 학술, 문예경제, 언론 등으로 나누어 수십 년 인위적으로 막혀 소통을 못했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연대 소속 대표들 가운데는 청년, 학생, 종교, 노동, 농민, 학술 등으로 분산되어 20여명이 함께 했다. 북측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 정덕기 중앙위원을 비롯하여 허강일 최해전 대표 뒤에 장재명 선생 등 여러분이 함께했다. 서로 자기소개와 짧은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지났다. 뒤늦게 미국에서 온 양은식 의장과 일본에서 온 임민식 의장등 해외대표들이 합류하여 동포의 정을 나누었다.

신옥자 선생님과과의 만남

이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아주 반가운 분도 만나게 되었다. ‘권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가워하며 달려온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독일에서 온 신옥자입니다!’

‘아!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신옥자 선생님은 60년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되었다가 그곳에서 조국의 민주화운동을 했었고, 특히 리인모 선생님을 비롯한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선생님

등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족소식을 전해주었던 분이다. 그러한 일로 신선생님은 조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다행히 지난 9월 2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초청으로 유럽지역에서 네 분이 조국 땅을 밟았는데 바로 신선생님이 그 분들 가운데 한분이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관련으로 전화를 걸어와 한 두번 통화한 일이 있었으나 만나본 일이 없어 알아보질 못했다. 그 분이 나를 알아보고 뛰어왔었다. 반가우면서 미안하기도 했다. 뒤에 리인모 선생님 따님이신 리현옥 선생님과 함께 송환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촬영도 했다. 이기욱 부회장은 유원지 이곳 저곳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필자도 그러한 모습을 사진기에 담았고 함께 대동강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로 했다.

3시부터는 유원지 잔디밭에서 체육오락경기를 하게 되었다. 남북해외대표가 ‘연대팀’ 과 ‘단합팀’ 으로 나누어 평양시민과 취주악단의 응원 속에 ‘사람 및 물건찾기’ ‘숫자 맞춰 보물함 열기’ ‘통일 지도 붙이기’



‘뽕줄넘어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등 재치 있고 웃음보 터뜨리는 오락경기였다. (젊은이들이 선수로 뛰었음) 앞에서 말했던 신옥자 선생님이 상품 탄 것을 나에게 주어 감사했다.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합성회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날의 시선집중은 아무래도 여성취주악단이였다. 남쪽에서도 이미 익히 알려졌듯이 취주음악과 일상불란한 동작, 그리고 조각처럼 아름다운 모습에 대표들은 넋을 잃고 있었다. 아직도 대회장 하늘에는 ‘조국통일’ ‘민족자주’를 매달은 고무풍선이 구름한점 없는 오월의 하늘에 떠 있었다.

100미터나 들어가는 평양 지하철

4시40분 민족대회를 마치고 대표단은 능라도를 떠났다. 오던 길을 되돌아 평양지하철노선 하나인 적성역-부흥역노선의 맨 끝 역인 부흥역에서 내렸다. 잘 알려졌듯이 평양지하철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다. 100m가 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까지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평양시민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밝은 표정으로 '반갑습니다.'를 연발한다. 평양지하철역의 내부는 참으로 호화로웠다. 벽면을 모자이크벽화로 장식하고 엄청난 크기의 상들리에도 화려했다. 대표단은 평양시민과 함께 지하철을 탄다. 어떤 북녘청년이 필자에게 선뜻 자리를 양보했다. '젊은이들은 서서기도 일 없습니다.' 부흥역에서 영광역까지는 서울 지하철처럼 2-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광역의 내부시설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했다. 저마다 사진 찍기에 바쁘다. 자동계단에서 승강장에서 지하철 안에서 만나는 평양시민들은 밝고 친절했다.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예의바른 모습이었다. 영광역에서 다시 양각호텔에 돌아와 쉬었다가 7시. 다시 환영만찬장인 고려호텔로 떠났다. 고려호텔은 특급호텔로서 이미 필자가 2001년 8·15축전 보고서에서 쓴바 있었다.

만찬회장은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필자는 2번 테이블에 배정되어 있었다. 남북해외대표단이 입장한 7시40분부터 조선사회민주당위원장이며 민화협 회장인 김영대 북측단장의 만찬사로 만찬이 시작되었다. '나라와 민족 앞에 다가오고 있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위하여 오늘 이루어낸 민족통일대회는 매우 뜻있었다'며 모두에게 술잔을 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남측의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평화와 통일은 염원하고 외쳐서만이 아니라 싸워서 지켜내고 이루어내야 한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이어 중국동포대표의 만찬사로 이어졌다. 각 테이블마다 남북해외인사끼리 인사를 나누고 축배를 외쳤다. '통일을 위하여' '자주.평화를 위하여' 술기운과 함께 만찬장은 하

나의 조국 한뼘줄 한겨레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2번 테이블에는 해외대표로 황영치 재일 한통련 선전국장, 호주에서 온 한승수 해외동포연합회대표, 미주 범민련 양은식 의장 카나다-코리아연합회 전준형 대표 등 이었고 남측대표로는 김홍현 전민협위원장, 동국대 정치학과 백정남교수, 유병태 유교(종단)대표, 손장래 민화협 고문, 필자 등이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에서 추석 때 고국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9·27일 황영치 선생등 재일 한통련 성원들이 고국 땅을 밟게 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테이블의 김영대,안경호,전금진,장재언,허혁필대표 등 북측지도부들과 반가운 재회인사도 나누었다. 10시쯤 만찬은 끝났고 대표단은 양각호텔로 돌아왔다.

만취한 만찬회장은 자정까지 이어져

평양에서의 이틀째 밤은 많은 대표들이 서울로 돌아갈 때 채워야할 선물준비에 바쁜 모습이였다. 책방, 매점에도 가득했지만 아예 호텔 로비에 임시 매대를 설치하고 미술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곳에도 대표단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필자는 하얀 천에 색깔을 넣어 스케치한 소품에 눈길을 돌렸다. 조선민족무용 쟁강춤, 장고춤을 추는 조선여인상을 골랐다. 값이 매우 싸다고 생각되었다. 어린이 남녀가 뛰놀고 있는 보다 작은 8·15기념소품을 여러 개 샀다. 서울에 가서 하나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이 임시 매대에서도 판매원이 내 이름패를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있어 또 다른 동포의 정을 느끼게 했다. 벌써 11시가 되었지만 잠자리에 들기엔 평양의 밤 시간이 아쉬웠다. 47층 회전식당에는 조영건 교수와 이문옥 전 감사관등 민주노동당 성원들이 벌써 여러 병을 비우고 있었다. 식당전체가 들고있는 때는 낭만적 술판이라서 였을까. 여기저기에서 끼리끼리 모여 열띤토론(?)을 벌이고 있기도 했다. 조영건 교수가 이 식당(카페?) 지배인을 불러 분에 넘친 필자소개를 해서 어쩔줄 몰라하는데 지배인은 어느새 가장 좋은 술이라

며 술 한병을 가져와 존경의 뜻을 표하겠다고 병마개를 따고 있었다. 부끄럽고 감사했다. 이렇게 평양의 밤은 자정을 넘고 있었다.

평양 사흘째 날이 밝았다.

5시 20분 자리에서 일어나 면도와 머리를 감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이미 이기옥부회장은 최병모회장과 임종인번호사와 골프장에 있었다. 사진속에 담았다. 대동강가에서는 관광은 재중동포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7시 30분 아침식사, 8시 50분 오늘 일정에 따라 호텔을 떠난다. 평천 강안 거리를 거쳐 충성의 다리를 건넌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평양-개성사이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2-3km쯤에 3대현장기념탑이 우람하게 서 있었다. 대표단은 평양시 력포구역 용산리에 있는 동명왕릉을 찾아가고 있다. 동명왕릉과 정릉사에 대해서는 2001년 평양통일축전에 다녀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동명왕릉탑사에 이어 다시 시내로 들어와 청춘거리로 들어섰다. 각종체육경기장 거리를 달리다 오른쪽으로 꺾어 얼마가지 않아 현대식 유리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바로 조선컴퓨터센터였다. 1990년 10월24일에 창립되었고 부지면적 35,000평방미터 연건평 26.715평방미터의 이 센터는 이북의 모든 부분에서의 컴퓨터화를 촉진시키는 지식산업기지가 되고 있었다. 프로그램과 심의등록보관, 보급을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강습회를 개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장치들을 수출입하는 등 컴퓨터센터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다. 여러방마다 다니면서 견학을 했지만 컴퓨터관련전문지식이 없어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언어 인식 능력등 소프트웨어기술이 매우 앞서있다는 참관자들의 말이었다. 각 분야별로 수 천명의 수재들이 연구 중이라고 한다. 12시30분 견학을 마치고 센터를 떠났다. 광복거리-붉은 거리-봉화거리를 지난다. 정주영체육관이 오른쪽으로 보였다. 보통강을 건너 만수대거리를 지나 유명한 평양냉면의 옥류관에 도착했다. 이미 옥류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한 바있기에 다시 쓰지 않는다. 필자가 앉은 테이블에서는

비빔냉면, 물냉면 두 가지를 다 주문했고 녹두전, 얼음보숭이까지 먹어치웠다. 옥류관 냉면도 유명하지만 대동강의 맑은 물로 닭아진 옥류암위에 세워진 건물이란데서, 아니 대동강의 풍치를 즐기며 식사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저마다 식사를 마치고 강가에 나와 대동강을 배경으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사진찍기에 열중한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쉬었다가 폐막식현장으로 떠났다.

아쉬운 폐막식

8·15민족통일대회 폐막식이 열릴 대성산성 남문은 평양시가지에서 동북쪽으로 10km쯤 떨어져 있는 대성구역에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금수산 기념궁전을 오른쪽으로 금성거리를 달리다보면 넓게 다듬어진 대성산성유원지 입구에 이른다. 왼쪽으로는 중앙동물원이 오른쪽으로는 중앙식물원이 있어 수목이 울창했다. 또 80,000평방미터에 이르는 대성산 유원지는 1971년 10월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대성산성은 고구려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축조된 산성으로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등 6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석축산성이다. 동서길이 2.3km, 남북길이 1.7km로 산성의 면적은 2.7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성벽의 길이는 7.076km에 이르고 주작봉-소문봉 사이엔 이중의 성벽으로 주작봉-국사봉 사이엔 삼중의 성을 쌓았다. 또한 산성남쪽에는 왕궁이었던 안화 궁터가 있다. 그리고 주작봉에는 혁명열사릉이 있다. 산성에는 20여개의 성문이 있고 성안에는 병영,병기고, 곡물창고등이 있었다고 한다. 폐막식이 열릴 남문은 산성이 이룩된 427년 이전에 세워졌으나, 오늘의 성문은 1978년 9월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높이는 19.5m.

폐막식은 웅장한 대성산성 남문 앞 넓은 잔디광장에서 남북해외대표와 북녘동포참관단이 함께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먼저 4시부터 남북합동 예술 공연이 진행되었다. 남측공연은 우위영사회로 여친슬비노래, 아침에 우는새는(여성) 남주리-북누리, 자진난봉가-방아

야, 장사익의 짙레꽃, 정이월다가고등 노래패 우리나라성원 등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합시다. 마지막으로 출연진모두가 나와 '평양'을 합창했다. 북측 공연은 역시 여성사회로 평양시 예술인들 공연이 진행됐다. 1.무용 리승유 외 11인 양산도 2. 여성 4중창 통일아리랑, 새봄을 노래하며 박목희외 3인, 3. 무용 묘향산 좋은 시고 4. 가야금병창과 독주 최혜란(우리장단이 좋다) 5.남성4중창-인민배우 조창현외3명(군밤타령) 6.옹헤야 7.무용-돈들다리(최명희외 11명)마지막출연진 모두 나와 우리 다시 만남시다. 등으로 이어졌다. 끝이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대회 폐막식이 열렸다. 폐막연설은 남측에서 단병호 민주노동위원장님이 해외대표로는 제일 이종환 대표. 북측은 김영대 민화협 회장이 이번 민족대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민족공조로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지키며 자주통일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만세삼창이 있었고 여성취주악단의 아리랑연주에 맞춰 단일기하강하는 것으로 민족공동행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다.

7시30분부터 이번 일정의 마지막 행사인 환송만찬이 양각호텔에서 있었다. 남과 북 해외대표들이 미리 지정된 테이블에 자리했다. 테이블마다에는 건배할 과일주 맥주 소주 등 주류와 음료수, 기본 음식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남측대표로 명진 스님의 건배사가 있었다. 모두들 술잔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는 건배를 하였다. 해외대표는 양은식 범민련미주본부의장이 북측에서는 림순길 조선 직업 총동맹 위원장이 이어 남쪽의 이장희교수가 축배를 제의했다. 테이블마다 축배 건배소리가 들린다. 필자가 자리한 4번테이블에는 북측대표로 허혁필 민화협부회장, 김병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비서가 함께했고 해외대표로는 김지영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고 민족신보주필부인) 캐나다에서 온 여성단체대표 그리고 남측에서는 유병태 유교대표 김중수 신부, 이상수 민주당사무총장 손장래 민화협고문 김홍현 전민련 의장, 필자 등이었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될 그날을 그리며 더 이상 갈라져 겨루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들이었다. 이번 민족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게 했다.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 여섯 분 방문

8월 17일, 서울로 돌아올 날에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 여섯 분이 호텔에 찾아오셨다. 평양에 와서 곧바로 요청해 두었던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어제 밤 만찬장에서 북측책임일꾼으로부터 통보 받았었다. 남쪽의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관련단체 대표들에 알려주었다. 너무도 반가운 얼굴들이 호텔 1층 로비로 들어오셨다. 홍경선, 김선명, 우용각, 김중중, 김영만, 김창원 선생님의 건강한 모습들이었다. 1층 식당 별실에서 밀렸던 소식과 전할 말을 주고 받았다. 추진위원 권오현 대표의 인사 말씀에 이어 홍경선 선생님의 환영말씀이 있었고 이어 노진민(천주교), 채은아(민화협), 이기욱(양심수후원회), 원윤영(통일광장) 이장일(나사렛한방병원원장)대표의 인사말과 소식을 전해드렸고 로비에서 갑자기 만나 함께 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인사말씀도 있었다. 이야기를 주고 받는 가운데 선물들을 돌렸다. 송환비전향선생님들은 가족들과 여름휴양을 가셨다고 하신다. 그래서 많이 못 오신 듯 싶었다. 또한 겨우 1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도 아쉽기만 했다. 선생님들 만난 이야기는 이미 이기욱부회장이 자세히 보고했었기에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남측대표단은 11시 호텔을 떠나 20분 만에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의례적인 출국수속을 마치고 공항광장으로 나갔다. 대표단이 올 때처럼 북녘동포들은 붉은 꽃뭉음을 들고 가는 손님을 환송했다. 여성취주악단도 석별의 연주를 하고 있었다. 김영대 안경호 허혁필 부회장 등 북측대표 지도부도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한 아쉬운 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가, 철책선 콘크리트장벽 헐어내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할 그날을 기리며 순안비행장을 떠났다. ✈

비전향장기수 장광명 선생님 별세

양심수후원회

통 일조국에 대한 평생의 염원을 안고 28년 옥고를 치루면서도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셨던 또 한분의 비전향장기수 장광명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감옥에서는 풀려났으나 또 다른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세상과 등져 살며 오랜 옥고의 후유증과 노환을 앓아오시느라 1차 송환 기회마저 놓치셨던 선생님은 뒤늦게 2차 송환을 신청해놓고 계셨으나 끝내 고향을 가시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고 장광명 선생님은 1920년 3월 2일 평북 구성군 오봉면 양지동에서 장영섭 아버님과 김영화 어머니사이에서 4남 2녀 가운데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 나셨습니다. 선생님은 고향에서 방현소학교를 졸업하시고 뜻한 바 있어 중국 동북지방으로 가시어 독학으로 소학교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시어 1937년 만주 통화현 소재 삼원포 보통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1940년 조선처녀 김상환님과 결혼하시어 권일, 영자, 영숙, 승명 네 자녀를 두시기도 했습니다.

1952년,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

1945년 조국광복을 맞아 고국에 오시어 바로 9월에는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시고, 이어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의주군 교육과장으로 '문맹 퇴치사업'에 헌신하셨고, 이러한 일이 인정되어 1947년에는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교육부간부과장(인사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48년에는 평양교육간부학교 당세포 책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분단이 빚은 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겐 편지로 인사만 하고 선생님이 가신 곳은 전라북도 인민위원회 교육부



소속이었고, 전주 교육담당책으로 활동하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선 후퇴에 따라 덕유산 태백산등으로 이동했으나 퇴로가 막혀 경북 상주지방에 계시다가 1951년 12월 야산에서 체포되었고, 미 CIC로 넘겨졌다가 1952년 12월 20일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으나, 1953. 9. 25 국방장관 감형조치로 무기형으로 확정 되었고, 1960년 4월 혁명 뒤 20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71년 만기출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출소는 했지만 갈 곳이 없어 대전 갱생보호소에 있으면서 인쇄소 식자공 고물 수집 등을 하며 어렵게 지냈으나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불법강제 연행되어 청주감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83년 다시 출소했고 고물수집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시다가 끝내 지난 2002년 9월 대전 다비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대전에 살고 있던 인민군 전쟁포로출신 감옥 동지이자 2차 송환 희망자이신 이창근 선생님이 아시게 되어 양심수후원회에서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뒤 퇴원하여 좁은 사글세방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사실은 사글세도 10달치가 밀려 양심수후원회에서 지불했었습니다.) 대전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님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감옥 후유증과 노환으로 투병하시다가 끝내 한일병원에서 심장마비로 꿈에도 잊지 못하시던 고향과 가족을 찾지 못한 채 2003년 10월 27일 오전 8시 50분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전 시립공원 묘원에 안치

그러나 선생님 가신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 다. 대전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사회단체

와 빈들교회 등에서 통일지사 고 장광명 선생 민족통일장 장래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대전지역 사회단체 성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대전 성심장례예식장에서 영결식을 가졌습니다. 대전 양심수후원회 김한섭 목사님 사회로 애국의례 약력소개(안응찬), 조사(김용우), 추도사(권오현, 임방규, 김규복) 순서로 진행되었고, 영구차로 운구하고 춤패 '우금치'의 살풀이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신은 대전 화장장에서 화장되어 분골함에 모셔 대전 시립공원 묘원 구봉산 영락원으로 안치하고 마지막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비전향장기수이며 2차 송환 희망자이신 허

찬형 선생님의 추도사와 이찬근 선생님의 호상말씀이 있는 다음 봉안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대구의 김태수 선생님, 전주의 김경선 선생님이 이어 올해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 가운데 세번째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이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늦어지면서 고향을 못가고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평생염원은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卍



알립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3년 회원송년모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연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간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것은 인간의 힘입니다.

좋은 사람들의 모임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2003년 회원송년모임' 을 가짐으로써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서로의 소중한 힘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일들을 돌아보고, 국가보안법폐지·양심수석방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재다짐하며 다가오는 중요한 시간들의 의미를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언 제 : 2003년 12월 14일(일요일) 낮 12시
- * 어디서 : 광화문 새서울주물럭 (세종문화회관 뒤)
- * 문 의 : 02)874-4063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에 보태쓰라고 강종건(한백장신구)님이 1,0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 * 양심수후원사업에 보태쓰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5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를 보내주신 회원 (4월 제15차 총회이후 10월까지)
- | | | |
|-----|-----|----------|
| 4월 | 김동 | 100,000원 |
| | 윤경숙 | 50,000원 |
| 5월 | 김동 | 100,000원 |
| 6월 | 김동 | 100,000원 |
| 7월 | 김동 | 100,000원 |
| | 윤경숙 | 100,000원 |
| 8월 | 김동 | 100,000원 |
| | 윤경숙 | 100,000원 |
| 9월 | 김동 | 100,000원 |
| 10월 | 김동 | 100,000원 |

겨울의 문턱에서 쓰는 인권편지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한번 만나지도 이야기를 건네지도 않았지만, 무참한 폭격에 스러져가면서도 맑은 눈망울을 간직하고 있던 이라크 어린이. 30여 년 전 전태일의 글과도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남을 수도 없어 결국 하늘나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 원치 않는 죽임을 당한 이들의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인권콘서트 열다섯번째, 14년 세월 인권을 노래해 왔지만 여전히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나누어야 할 사연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인권이란 무엇인가?' 곱씹어 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열정을 바쳤던 그 첫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돌아보려 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연을 다시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연들에 관심을 기울이려 합니다.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양심적병역거부자, 양심수, 성적소수자, 장애인... 바로 우리사회가 내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다름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 인권콘서트가 그리는 세상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인권콘서트.
시와 노래, 그리고 인간애가 어우러지는 이 콘서트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 일시 :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장충체육관
-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겨레신문사
- 문의 : 민가협 763-2606
www.minkahyup.org

출연 : 정태춘 박은옥 전인권 NEXT 이상은 꽃다지 김중서
사회 : 박원순 최광기

파병반대 문화 예술인 행동의 날

김규중 통일뉴스 기자



12일 오전 11시 40분경 미 대사관 부근 KT 빌딩 앞 '광화문 평화캠프' 농성장에서 '파병반대문화예술인행동의날' 집회가 열렸다.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우리만화연대 회원들이 만든 그림들과 '평화의 비둘기'를 들고 파병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01 한겨레21기자 낙성대 '만남의 집' 찾아와 2차 송환과 관련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취재.

☞ 충무로역 소극장에서 푸른영상 김동원감독 기록영화 '송환' 시사회가 열림. 10여년을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을 취재하며 지켜본, 특히 조창순, 김영식 선생님들 생활모습을 통해 비전향장기수의 신념과 송환의미를 부각시켰음. 이정규, 김호현, 이정태, 소수영, 이득형, 양계숙, 모지희, 권오현 함께함.

☞ 경찰청은 제11기 한총련 정재욱의장등 핵심간부2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 지역총련의장, 특별기구위원장등 중앙상임위원급 11명과 미군사격장시위관련자등 11명이 포함됨.

☞ 국정원은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가 1991년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02 장충동 민주노총서울본부회의실에서 전태일열사 청계천기념사업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열다. 경과보고 추진위 명칭 확정, 사업 계획안등 토의하다. 김동완, 노수희, 남상헌, 신철영, 최종인, 정인숙, 배기남, 권오현등 참여.

☞ 재독사회학자 송두율교수는 머물고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설등 공안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하다 송교수는 후보위원을 수락한 바도 활동한 바도 북에서 활동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말하다.

☞ 통일연대는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북모략책동 황장엽이 방미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중단, 근거없는 대북모략책동중단, 황장엽초청계획철회,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고취하는 일체 기도중단등 촉구하다.

☞ 평통사와 자통협등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강요하는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 양심수후원회는 이제까지 '후원회소식 발송을 했던 동대문우체국과의 '정기간행물발송계약' 을 해제하고 새로 관악우체국과 발송계약을 체결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89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 말 권오현공동의장 11기한총련핵심간부에 대한 수배령 규탄, 전해투(해고노동자) 남병준씨 노동자탄

압규탄발언. 건국대 김종곤 유죄실형 규탄 발언등이 있었음.

☞ 이문학회 이구영 선생님께서 지난달 25일 팔에 작은 종양이 있어 입원하셨고 29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삼성병원 816호실에 입원하고 계신 이구영 선생님을 문병 다녀왔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03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한총련 주최로 '사법당국의 11기 한총련 이적단체 임의규정 및 체포영장발부에 대한 한총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열다. 정재욱 의장의 진행으로 나창순 범남포 의장 전농 정현찬 의장 양심수 후원회 권오현 대표 규탄발언과 정재욱 의장의 기자회견낭독이 있었음.

☞ 최용석 계명대 2003년 총학생회장이 체포영장도 없이 11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첫 번째로 경찰에 강제 연행되다.

☞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정순덕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이 문병에는 2차 송환과 관련 한겨레21 사진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04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유기진 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담석수술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어 피곤한 모습이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05 남민전 사건으로 사법살인당한 고 신향식선생의 21주기를 맞아 광주공원묘지에서 유족과 옛 동지들, 사회단체 대표들 50여명이 모여 추도식을 가졌음. 권오현 사회로 이종린 범남포 명예의장 강민조 유가협회장 이학영 YMCA총무(남민전동지)등이 추도말씀이 있었고 김남주 시인 육성 '전사' 시낭송등이 있었음.

☞ 여중생범대위 최근호상황실장이 수원에서 경찰에 강제 연행. 의정부경찰서로 이송 구금되다. 최근호실장은 광화문 촛불시위등과 관련 부당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

☞ 경북대 최성택 2003년 총학생회장이 보안수사대에 의해 불법 강제 연행되다.

06 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 5차 회의 규탄기자회견' 을 열다. -마치고 미8군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다.

☞ 여중생 범대위 대표(홍근수, 진관, 권오현) 들이 의정부 경찰서 찾아 최근호 상황실장 연행○OP 강력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다. - 대표들은 최근호실장을 면회하고 격려하다. 이어 검찰청을 방문 담당검사

- 지검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부재중이라며 지검장비서 실장이 대신 나와 최실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지킬 것 촉구하다.
- ✚ 서울대 가을철 대동제 기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 기금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가 열렸음(10월 6일~10일까지)
 - ✚ 평양에 세워진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에 참석할 남쪽 민간방북단 1,100명이 35대의 버스를 이용 개성-평양육로로 평양에 들어가다.
- 07** 과천 법무부 앞에서 미공병대, 스트라이커 반대 투쟁 구속자 석방 대책위. 11기 한총련공동으로 '스트라이커 부시 대 시위 관련 인권유린사례보고 및 한총련 탄압 중단 구속자전원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탄압에 대한 규탄연설(권오현) 기자회견문낭독(홍근수)등이 있었고 석방요구서를 법무당국에 전달하다.
- ✚ 명지대 김민선 2003년 총학생회장이 경찰당국에 11기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강제연행되다.
 -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등 7개 단체로 이루어진 '송두울 교수 사건 교수, 학술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교수를 수사가 끝난 뒤 추방하는데 반대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는데 대해서 인권침해라 규탄.
- 08** 서울지법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 판사)심리로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2001년 단국대총학생회장 이신라 학생 결심공판이 있었음 검찰은 이적단체가입등 혐의를 들어 1년 구형하다.
-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여중생범대위 및 훗불시위 탄압중단과 최근호상황실장 즉각 석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다.
 - ✚ 연세대 교정에서 정치 수배 학생, 학부모와 이신라, 송승훈, 송용환, 유영업, 권오현등 수배해제투쟁과 11기 한총련 탄압에 대한 강력 대응하는 간담회를 나누다.
 - ✚ 서울대 민가협 장터와 유가협 장터를 격려방분하다(김호현, 송창학, 심주희, 김미성, 권오현)
- 09**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관련으로

- 구속 기소된 2002년 단국대총학생회장 조명수 학생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년 징역형 구형하다.
-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색깔공세 한나라당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손준혁사회로 한상렬상임의장의 취지말, 권오현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연설. 황선 범청학련 대변인의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 민변은 '이라크파병과 관련 전국변호사 및 법학교수 179명이 함께한' 이라크파병에 대한 법률가선언'을 발표하다. 선언에서는 '평화선언과 침략 전쟁 부인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이라크파병은 부당하다고 주장.
- 10** 의정부법원 형사 단독 지주현 판사는 스트라이커부대반전시위로 구속 기소된 추승미등 학생 12명에 대해 집시법등 위반혐의를 인정 2년과 1년 6월등 징역형과 3년에서 2년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영훈 기자에 대해서는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다. - 이영훈 2년 6월 실형, 추승미, 우상규, 김식, 임선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남욱, 유주상, 지태민, 오종식, 정도영, 오원주, 하태욱, 김주식 1년 6월에 2년 집행유예.
- ✚ 의정부 범위 입구에서 미군공병단 스트라이커부대투쟁 구속자 대책위 주최로 스트라이커 투쟁구속자 출소환영 및 완전석방촉구대회를 열다. 권오현 대표의 유죄선고 규탄과 무죄석방촉구발언. 이규재 범남본부의장의 성명서낭독. 출소자들의 인사말 등이 있었음.
 - ✚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최근호 상황실장 구속규탄 대회를 열다. 권오현, 이규재 대표등 규탄발언마치고 대표단 8명이 최실장 면회하다.
 - ✚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고 오늘 2년 6월 실형을 받는 이영훈 기자를 면회하다(이규재-권오현, 최지호)
 - ✚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조용수 2002년 단국대총학생회장이 보석으로 출소하다.
 - ✚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수뢰의혹과 관련 국민에게 사죄하며 국민에게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을 물겠다고 발표
- 11** 대학로에서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전투병파병반대 제1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다. 단병호 민주노

총위원장 대화사, 홍근수, 권영길 대표등 반대연설 정현찬 농민회장 성명서 낭독 등을 마치고 탑골공원 앞까지 3000여명행진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인천여고 이슬기 학생등 파병반대연설등 정리집회 양심수 후원회에서는 변의숙, 김미성, 권오현 참석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최근호 실장 즉각 석방 범대위 탄압중단 SOFA전면개정 320차 자주평화 촛불집회를 열다. 범대위 우위영 문예위원장 사회로 서총련 추파의 춤에 이어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대표의 대화사 전교조노래패와 박준의 노래공연 10일 석방된 연세대 오원주 학생의 자유 발언 등이 있었음.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초등학교용 통일 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를 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장희 교수와 이 책을 펴낸 츠출판사 전 편집장 김지화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양심수후원회 시시모임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의 역사강좌 '제16강 이승만과 북진통일론'을 20여명회원이 모인 가운데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음.

유기진 선생님께서 담석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치료를 하시다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지난 호에 착오로 선생님 입원수술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9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21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23일과 10월 4일 병원으로 문병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10월 6일 퇴원하시어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통일연대 학술연구특별위원회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학단협 등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 정세 - 한반도 평화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노무현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재신임국민투표를 12월 15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함

양심수후원회 제15차년도 제6차운영위원회가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렸음. 활동보고와 회계보고에 이어, 2003 회원역사기행, 송환선생님 상봉과 묘소 참배 등 논의

재독철학자 송두율교수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경계인으로 살기위해 노동당에서 탈퇴하고 독일국적을 포기하며 대한민국헌법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29차 통일전략포럼 '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김근식교수의 발제와 김경구(명지대), 김재홍(경기대), 조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원), 김열수(국방대교수)등이 찬반논쟁을 벌임.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운동 본부등 여러 단체 공동으로 제49차 미대사관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가전 전면재협상촉구 및 이라크파병반대, 주권침해 국민부담가중 미래 한·미동맹정착구상회의를 규탄하다. 이어 90년 한미양국이 체결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소각하는 상징의식 마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접수시키다.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전국민중연대와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한총련등 공동으로 한총련에 대한 공인탄압, 쇠파이프 폭력연행 인권유린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 대표의 취지말, 정광훈 의장의 규탄발언, 오종렬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대표단 경찰청장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접수시킴.

'후원회소식 144호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김

홍익대학생회관 앞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 법철폐를 위한 서총련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다. 서총련 2002년 정종성의장과 임지훈 11기 서부총련의장 홍익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다.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 김선분 범남본 선생님 등이 격려발언, 정종성의 기자회견 낭독 등이 있었음

민가협 목요일집회 491회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여는말 권오현 공동의장 등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전공진 부장판사)심으로 이상이, 권정기씨 등 진보의려사건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음

송살대 사회봉사관에서 통일연대 대표자회의 열다.

서울 동자동 계승연대 사무실에서 계승연대 22차 상임대표자회의를 열다. 제1회 해원문화제 추진점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현안 대응 등(오종렬, 강민

조, 권오현 대표와 박희영 사무국장)
 ✎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13차 장관급 회담을 내년 2월3일~6일까지 서울에서 열 것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11월초 평양에서 열 것을 합의하고 폐막하다. 이번 회의에서 북측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보도됨.

✎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서울역 광장에서 '이라크전투병파병찬반거리투표' 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하게하다.

✎ 회사측의 성실한 임단협 협상을 촉구하며 45m높이의 대형크레인에 올라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주의 급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목매어 자살하다.

✎ '후원회소식 발송작업을 민가협 어머니, 김영식, 문상봉, 변의숙, 김민정, 이봉주, 박노숙, 김미성 함께하였습니다.

18 제기동 성당에서 함세웅 신부님의 주례로 김재원(고이재문 선생님 사모님)님 따님이신 이경실(마리아)님이 백용준(알폰소)신랑을 맞아 양가 부모님들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축을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후원회소식 144호 발송하다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푸른샘에서 한총련학생들의 '황장엽 방미저지 결사대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임지훈 경기대 학생회장이 결사대장을 맡다.

19 양심수후원회 10월신행이 도봉산에서 있었음. 운가사-만경대-청



룡사터-도봉산입구로 내려오는 코스, 점심식사를 마치고 송두울 교수 사건과 이라크 파병 문제등 시사토론-김수룡, 변숙현, 김교영, 송세영, 강담, 신현익, 변의숙, 이득형, 소기수, 이창희 함께함 -마치고 김교영, 송세영, 변숙현, 권오현, 유기진 선생님덕에 문병

✎ 임종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며 의원직을 걸고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 국민행동은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파병결정을 규탄하고 재신임에서 그 책임을 물겠다' 고 선언 또한 저녁에는 교보빌딩 앞에서 파병반대 촛불집회를 열다.

✎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국제조사단은 전남 함평군 해보면 광안리 불갑산 자락 옛 빨치산 참호 속에서 치아와 뼈 등 유골5구와 은가락지, 탄피 등 유품을 발굴 -이곳은 1951년 2월20일 육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등 군경이 '대보름작전'이란 이름으로 함평, 장성, 영광, 나주 등 4개군 민간인 500여명을 학살한 곳으로 지목돼왔었음.

20 서울 관악구 봉천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1팀 채희령 대리님이 낙성대 '만남의 집' 을 찾아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와 주5일 봉사원 파견문제협의하다. 11월부터 만남의 집에 봉사원 1명을 파견하기로하다.

21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미국의 제네바합의파기규탄과 북미불가침조약체결 촉구를 위한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다. 한홍북 집행위원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대표의 미국규탄발언 한상렬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고 불가침서명용지 8만 여장을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못함.

✎ 미8군사령부 앞에서 평통사, 자통협 등 공동으로 미국의 강압에 의해 합법조작된 용산기지 합의각서, 양해각서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김관태 지지협정팀국장사회로 평통사 대표의 여는말 서경순 민가협 전상임의장의 규탄발언 한상렬의장의 기자회견문낭독등이 있었음. 기자회견에서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과 김희상 당시 국방보좌관 등 관련자 즉각 파면을 요구하다.

✎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권오혁 편집국장 윤선희 외국어대 학생 등은 외교통상부를 방문. 김은석 북미국심의관 김홍균 북미과장 등을 만나 황장엽 방미 반대 플러첸 추방 등을 공식촉구하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임종석 의원을 격려방문하다(김호현, 권오현)

✎ 서울지검공안1부(부장오세현)는 송두울 교수에게 국

- 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법원은 송교수에 대해 유치명령을 내려서 초경찰서에 구금하다 -법원은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
- 22** 의정부 법원 앞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촛불시위 탄압 중단과 최근호 상황실장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홍렬 기획국장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 후원 회장의 여는 취지말, 사이버 범대위 채근식 대표의 석방 촉구발언, 김정숙 민가협 전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민가협어머니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근호 실장과 이영훈 기자회견.
- ☞ 서울지법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이른바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관련 불구속 지조된 이산라 20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실질심사 전달 판사로 송두을 교수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범죄소명이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하다.
- ☞ 부산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김주익 노동해방열사 추모 및 노동탄압 규탄 전국대회'가 열리다. 단병호 위원장과 조합원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진재벌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김주익 회장을 죽게 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
- 23** 양심수후원회 2003회원 역사기행 사전답사를 다녀오다. 김호현 운영위원과 김혜순, 김경주 회원 권오현 등이 아침일찍 떠나 전북지역 순창, 담양 등지를 답사하며 숙소와 기행지를 결정하고 돌아오다.
- ☞ 4월 혁명회는 향린교회에서 80회 월례발표회와 제6기 민족학교 개강으로 김남식선생의 '한·미 동맹과 이라크 파병'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다.
- ☞ 송두을교수 구속과 관련된 교수 학술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는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송두을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서충련 주최로 '학살과 병결사저지 대학생 비상시국 단식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박재익 서충련의장(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성훈 조국통일위원장(광운대)등 중앙상임위원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다.
-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주최로 '이라크파병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이라크파병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찬반투표 결과는 67,458명 가운데 파병반대 52,415(77.8%), 찬성은 14,301(21.2%) 였다고 하다.
- ☞ 제주도에서 있을 남과 북이 함께할 민족통일 평화 체육문화축전에 참가할 이북의 김영대 단장 등 임원 선수단 190명 고려 민항편으로 제주에 도착.
- ☞ 대구시 신당동 (주)세원 정공 관라동 앞에서 세원그룹 계열사인 충남 세원테크 이해남 노조위원장이 분신자살기도 동신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고 있음.
- 24**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의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 이후 국민 행동 계획과 이라크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지침 비상시국회의의 결의문 등을 채택하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한충목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다. 김종일 상황실장의 경과보고 박상중(참여연대), 오종렬(전국연합), 정현백(여성단체연합)대표의 파병반대 발언 정현찬 전농의장의 투쟁계획 발표. 김이숙임, 유덕상의 결의문 낭독 등이 있었음.
- ☞ 통일운동가 수학자 안재구 박사 7순 기념 및 장수향 여사 회고록 '쉬어지지 않는 양산' 출판기념회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열렸음. 전대협 동우회 전문환씨 사회로 두분 약력소개 권오현, 이천재씨의 축하 말. 안재구 장수향여사의 답사와 소감등이 있었음. 남민전 동지들과 민가협 유가협 사회단체 성원 등 100여명 함께 했음.
- ☞ 프레스센터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새소장 취임식이 있었음. 제3대 소장에 문학평론가이며 평론가협회 회장인 임현영 중앙대 겸임교수가 취임했고 제2대 친일인명사전 편집위원장에는 한성대 윤경호 교수가 맡다.
- ☞ 제주 서귀포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축전 대표단과 제주도민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 민족평화축전' 막을 올림.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되어 합화한 성화를 북측 마라톤 영웅 정성욱 선수와 남측탁구 스타 김부교 선수가 최종주자로 점화시키다. 제주도 우근민 도지사의 환영사 김영대 북측대표단장과 김원웅 공동 조직위원장이 김념사를 하고 개막식을

끝으로 경기에 들어갔음. 또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민족평화미술전도 열렸음. 조선화 금니화 만년화 보석화 등 북측의 국보급 미술품 100여점과 수공예품 100여 점 등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 전시되다. 개막에는 김영대 전금진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수 아태부위원장 남측에서 김원웅, 이연택(공동위원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 했고 조선미술가 동맹 중앙위원회 최성룡 위원장도 함께 했음.

25 대학로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2차 국민행동의 날 한·미·일 터키 공동 반전 행동 집회를 열다.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등 2천 명이 모인 가운데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의 대회사 부천고등학교 여학생의 파병반대 발언. 정재욱 한총련 11기의장 등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등이 등단한 가운데 정재욱 의장의 파병반대 연설 한·일 민중공동선언 낭독(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있었고 '우리나라' '천지인' 등 문화공연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이숙임 대표의 반전평화 선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탑골공원 앞까지 행진 정리집회를 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심주이, 변의숙, 김미성, 오영순, 김민정 함께함.

☞ 저녁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500여 청년학생 등이 모여 파병반대 촛불집회를 열다. 마치고 천막농성을 하려던 한총련 소속 학생 15명을 경찰이 강제 연행 서대문서 등에 분산 감금하다.

☞ 대학로에서 국민행동의 날 집회 사전 행사로 살인자본 한진 세원 규탄 및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 분쇄 결의 대회가 열리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대회사, 오종열 전국연합상임대표 규탄발언.

☞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시의 서면안전 보장' 발언과 관련 '동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고려할 용의가 있다' 고 밝힘.

☞ 서울 동작동 현충원앞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 연대 주최로 민가협 회원 등 50여명이 모여 박정희 기념관건립 반대와 박정희 묘를 국립묘지에서 옮기라고 요청하는 집회를 열다.

☞ 서대문 경찰서는 25일 밤 강제 연행된 학생들을 면회

갔던 김종일 이라크 파병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을 불법긴급체포 감금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27 대전 빈들 교회에 계시면서 폐렴 간경화 등을 앓으시던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 희망자)장광명 선생님께서 지난 21일부터 대전 신탄진 한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셨으나 끝내 심장마비로 27일 8시 50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연이은 분신·자결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제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간담회'를 열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분신 등 사태 경과보고 범국민대책 기구구성 등 결의하다.

☞ 이라크파병 비상국민행동 대표단 서대문 경찰서를 방문 서장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정보과장실에서 과장 등 경찰 당국에 김종일 상황실장 부당체포를 항의하고 즉각석방촉구 대표단은 김종일 상황실장을 면회하고 체포당시 상황을 청취하다.(오종렬, 홍근수, 한상렬, 노수희, 권오현 외)

28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송두울사건 교수·학술 연구자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공동제안으로 '송두울 교수 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다. 간담회에서는 대책위를 확대개편 적극대응하기로 하다.

☞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정광훈 대표의 여는 말, 권오현 대표의 구속규탄·석방촉구 발언, 홍근수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 고 장광명선생님 장례식 관련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대표는 대전 유성 성심 장례예식장에 가서 고인의 민족통일장 진행등 대전 장례위원회 일꾼들과 협의. 이날 서울 통일광장에서 임방규, 김해섭, 김영승 선생님과 음성에서 김동섭 선생님이 오시어 문상하심.

29 대전 성심 장례예식장 영결식장에서 '통일지사 고장광명선생 민족통일장 장례위원회 주최로 "통일지사 고장광명선생 민족통일장" 영결식이 진행되었음. 대전 양심수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한섭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 사회로 애국의례에 이어 입을위한 행진곡을 합창하고 안웅찬 대전 실천연대 대표의 약력소개 김용우 대전·충남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조사,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임방규 통일광장 대

표, 김규복 대전 충남 녹색연합 상임대표 순으로 추도가 있다음 운구위원들이 영구차로 운구한다음 추패 '우금치'의 살풀이 춤을 마치고 대전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여 분골함에 모셔 대전 서구 흑석리 대전시립 공원묘원인의 구봉산 영락원에 옮겨짐 이곳에서 이영복 대전·충남 연합 자주통일위원장 사회로 추도식 열림. 최고진 21세기 대안정책 포럼 공동대표와 비전향장기수로 2차송환희망자이신 허찬형선생님이 추도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같은 2차 송환희망 비전향 장기수 이찬근선생님의 호상말씀을 끝으로 4978호 봉안소에 모셨음. 이날 장례식에는 김제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사무처장 윤종세 개혁국민정당 유성지구당 위원장 박영기 대전·충남 연합 민주인권 위원장 홍춘기 대전 참사랑 일꾼회 회장 최양용 대전 6·15 청년회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함께 했음.

6·25전쟁 당시 미해병대가 반도호텔에서 인민군포로들을 대량학살 했다고 당시 미해병 1연대 2대대 자동화기 분대장이었던 칼랩(74) 병장증언을 인용해 미주간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11.3일자로 보도되다.

30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 재검토 및 무책임한 파병몰이 6인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숙임 여성 평화회의대표 사회로 정광훈 대표의 여는말, 노희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질의서 낭독, 박순정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소장의 해설 등이 있었음. 기자회견에서는 한승주 주미대사. 윤영관 외교통상장관, 조영길 국방장관, 반기문, 김희상 두오교구강 보좌관 나종일 외교안보수석 등의 해임을 촉구하다.

서대문 경찰서 부근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파병반대운동 탄압 김종일 상황실장 구속 규탄 대회'를 열다. 홍근수 대표의 여는말, 정용준 민중연대 자주통일 국장의 경과 보고,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 이규홍 민주노동대의협력국장의 규탄연설이 있었음.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433회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내용으로 진행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문중인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제기동성당에서 KAL 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는 87년 858기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자리를 마련하다. 신성국(대책위 집행위원장) 신부사회로 차옥정 가족회장 김호순, 유인자, 이을화, 임옥순씨등 피해자 가족 5명이 나오 가족들의 심정과 사건의혹, 정부의 부당 대응등을 증언하다.

31 회원역사기행 숙소 등 기타 사전비용 350,000원을 순창농협으로 송금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 경향잡지 기자 찾아와 '만남의 집 과 양심수후원회에 대한 인터뷰(권오현)을 하고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등 취재.

낙성대 부근 시골집에서 김미성 간사에 대한 송별과 김혜정 새 일꾼에 대한 환영모임을 갖다. 만남의 집 세 선생님, 노혁, 김호현, 송창학, 주경임, 유선화, 심주이, 이용준, 권오현 회원이 함께하다.

평택역 광장에서 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 대책위와 팽성읍 대책위 여중생 범대위 등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저지 범국민 쉼기대회를 열다.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용한 평택 대책위 상임 대표의 여는말, 문정현 신부, 정현찬 전농의장, 홍근수 목사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대회를 마치고 시장로타리 시청 앞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저지로 평택역 광장으로 되돌아와 정리집회를 하고 해산하다.

양심수 103명에 영치금 1만원씩 보냄.

'말' 4권과 '민족21' 5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정순덕 선생님 간병비 1,000,000 보냄.